

少陽人 藥方の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배효상* · 박성식*

Abstract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rescription

Bae Hyo-Sang*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tch the expansion of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DongyiSooseBowon 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bobon.

2. Method

I compared the Soyangin's prescription and medications of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those of DongyiSooseBowon 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bobon.

3. Result and conclusion

1) Soyangin's Medications of the same kind in Chobonguen's prescriptions and Gabobon's and Chopanbon's are thirty-two; like Bangpoong(防風), Hyeunggye(荊芥), Sangjihwang(生地黃), Sukgo(石膏), etc. And these medications are the principle in Soyangin's disease.

2) Soyang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Chobonguen's prescriptions and Gabobon's and Chopanbon's are Yangdokbackhotang(陽毒白虎湯). Chopanbon's Yangdokbackhotang(陽毒白虎湯) is more rational and effective prescription.

3) Soyang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Chobonguen's prescriptions and Gabobon's are eleven; Bangpoontongseungsan(防風通聖散), Chengumdojuksan(千金導赤散), etc. These prescriptions are similar in the structure.

4) Soyang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Gabobon's prescriptions and Chopanbon's are five; Hyungbangpaedoksan(荊防敗毒散), Yangdokbackhotang(陽毒白虎湯), etc. These Prescriptions make a change in the structure from Gabobon's to Chopanbon's. As this we know that Dongmu(東武) selected Sas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 and medication in detail as he has the more experience of treatment.

Key words : Formative process, Soyangin's Prescription, Chobonguen, Gabobon, Chopanbon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배효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 031-710-3737 E-mail) bhs70@hitel.net

I. 緒 論

『東醫壽世保元 初版本』¹⁾을 통해 제시된 四象人體質病證藥理는 東武의 醫藥 經驗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 나타는 것이며, 이러한 축적의 과정은 東武의 초기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²⁾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³⁾을 통하여 그 대강의 윤곽을 파악 할 수 있다.

『草本卷』에 기재된 藥方을 살펴보면 少陽人에 관련된 藥方이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一統과 二統으로 나누어 草本卷 전체에서 가장 많은 약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病證論에 각 藥方에 대하여 구체적인 體質病證藥理의 概念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각 藥方에 따른 개별적 主治證만을 기재하여 아직 體質病證藥理라는 東武의 四象의 시각이 초보 단계임을 알 수 있다. 『甲午本』에서는 體質病證藥理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初版本』과 비교해 보면 病症에 대한 소속의 변화와 藥方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東武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개념을 검증하고 경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著者は 『草本卷』 少陽人 藥方,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を 비교하여 少陽人 新定方に 선택된 藥物의 변화과정과, 각 문헌에 同名으로 기재된 藥方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少陽人 新定方の 형성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の 藥物 비교

- 1) 이하 『初版本』 이라 한다.
- 2) 이하 『草本卷』 이라 한다.
- 3) 이하 『甲午本』 이라 한다.

1) 藥方과 藥物의 개수

『草本卷』 少陽人 藥方은 45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53종이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은 22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36종이며,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은 20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37종이다. 『草本卷』에서 『甲午本』으로 가면서 藥方의 개수와 藥物의 개수는 모두 감소되었으나, 『甲午本』에서 『初版本』으로 가면서는 藥方의 개수는 감소되었으나 藥物의 개수는 증가되었다.

2) 공통 藥物

『草本卷』 少陽人 藥方,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に 모두 공통으로 사용된 藥物은 防風, 荊芥, 澤瀉등의 32종이다.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서는 53종의 藥物이 사용되었고, 이들 53종의 藥物 중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과 공통되는 藥物은 茯苓, 生地黃, 羌活등의 33종이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은 甘草, 牛膝, 貝母등의 19종이다.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의 53종의 藥物에서 19종의 藥物을 제외하고 乾地黃과 靈砂의 2종의 藥物을 추가하여 36종의 藥物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36종의 藥物 중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과 공통된 藥物은 防風, 荊芥, 澤瀉등의 33종이고,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 사용되지 않는 藥物은 肉蓯蓉, 乾地黃, 靈砂의 3종이다.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는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의 36종의 藥物에서 3종의 藥物을 제외하고 金銀花, 沒藥, 連翹, 乳香의 4종을 추가하여 37종의 藥物이 사용되었다. 이 少陽人 藥物의 변화과정은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草本卷』에서 『初版本』으로 연결되는 藥物은 33종의 共通약물과 『草本卷』에서 쓰였다가 『甲午本』에서 사라지고 다시 『初版本』에서 사용되는 金銀花, 沒藥, 連翹, 乳香의 4종 藥物로

총 37종의 藥物이다.

『草本卷』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甲午本』에서 추가되고, 다시 『初版本』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들은 乾地黄, 靈砂의 2개 藥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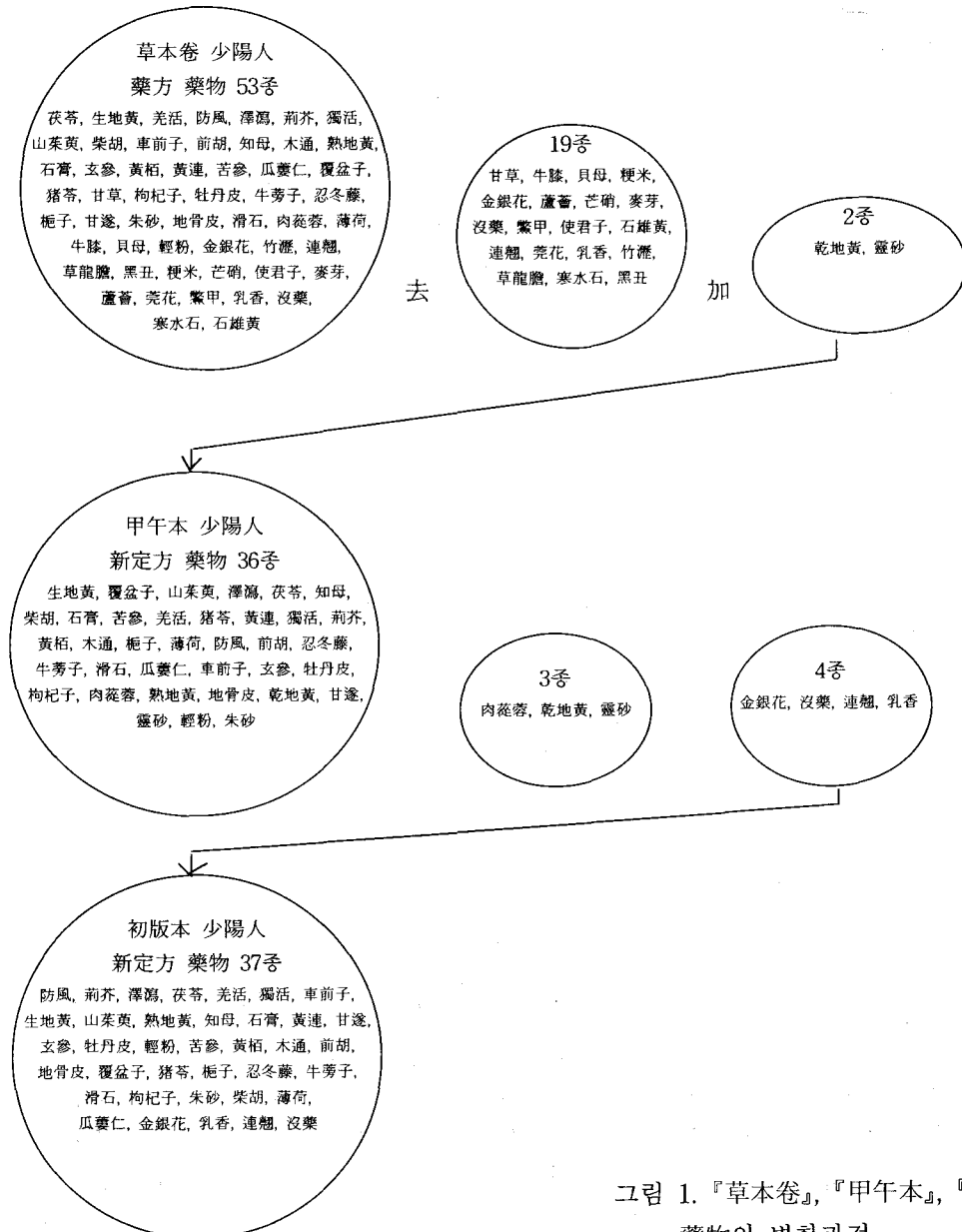


그림 1.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少陽人 藥物의 변화과정

3) 『草本卷』 少陽人 藥方 및 『甲午本』,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의 빈도

(1) 『草本卷』 少陽人 藥方 藥物의 사용빈도

『草本卷』 少陽人 藥方의 藥物 중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藥物은 茯苓으로 총 29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生地黃이 27개, 羌活과 防風이 23개, 澤瀉와 山茱萸가 22개, 荊芥가 21개, 獨活이 19개, 車前子가 16개, 柴胡와 黃白이 15개, 石膏와 前胡, 知母가 13개, 熟地黃이 12개, 木通이 11개, 覆盆子와 玄參, 黃連이 10개, 瓜蒌仁과 牡丹皮, 猪苓이 9개, 苦參과 枸杞子, 忍冬藤이 8개, 甘草와 牛蒡子, 梔子が 6개, 滑石과 牛膝이 4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3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甘遂 朱砂 地骨皮이고,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輕粉 金銀花 薄荷 肉蓯蓉 貝母이며,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粳米 蘆薈 芒硝 麥芽 沒藥 鱉甲 使君子 石雄黃 連翹 莞花 乳香 竹瀝 草龍膽 寒水石 黑丑이다.

(2)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藥物의 사용빈도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의 藥物 중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藥物은 生地黃으로 총 17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覆盆子가 10개, 山茱萸와 澤瀉가 9개, 石膏 知母 茯苓 柴胡가 8개, 苦參이 7개, 猪苓 羌活 黃連이 5개, 黃栢 木通 獨活 荊芥 山梔子 薄荷가 4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3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前胡 防風 忍冬藤 牛蒡子 滑石이고,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枸杞子 牡丹皮 車前子 瓜蒌實 玄參 肉蓯蓉 朱砂이며,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

物은 熟地黃 地骨皮 乾地黃 甘遂 靈砂 輕粉이다.

(3)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 藥物의 사용빈도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의 藥物 중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藥物은 防風으로 총 20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荊芥가 17개, 澤瀉와 茯苓이 16개, 獨活과 羌活이 14개, 車前子가 12개, 熟地黃 生地黃 山茱萸가 10개, 知母가 7개, 石膏가 6개, 黃連과 甘遂가 5개, 玄參 牡丹皮 輕粉이 4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3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黃栢 地骨皮 前胡 木通 苦參이고,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滑石 朱砂 猪苓 忍冬藤 牛蒡子 山梔子 覆盆子 枸杞子이며,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乳香 連翹 柴胡 薄荷 沒藥 金銀花 瓜蒌仁이다.

각 문헌별 少陽人 藥物의 빈도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4) 각 문헌별 少陽人 新定方 藥物의 사용빈도 비교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서 가장 많이 쓰인 藥物은 茯苓이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가장 많이 쓰인 藥物은 生地黃이며, 『初版本』에서 가장 많이 쓰인 藥物은 防風이다.

『草本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茯苓은 『甲午本』에서 그 사용빈도가 8회로 『草本卷』보다 21회가 줄었으며, 『初版本』에서는 16회로 다시 증가되었다.

『甲午本』에서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生地黃은 『草本卷』에서도 茯苓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藥物로 『初版本』에 가면서 그 사용빈도가 10회로 줄어 들게된다. 『初版本』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防風은 『草本卷』에서도 23회로 茯苓과 生地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甲午本』에서만 3회로 그 사용빈도가 매우 적다.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는 사용되었다가,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는 안 쓰이고 다시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사용되는 藥物로는 金銀花, 沒藥, 連翹, 乳香이 있다.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추가되고, 다시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로는 乾地黃과 靈砂가 있다. 『草本卷』에서 『甲午本』, 『初版本』의 藥物빈도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⁴⁾

- ① 『草本卷』 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증가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 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乾地黃, 薄荷, 靈砂의 3개 藥物이다.
- ② 『草本卷』 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감소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 보다 증가되는 藥物은 防風, 荊芥, 澤瀉, 茯苓, 羌活, 獨活, 車前子, 山茱萸, 熟地黃, 甘遂, 玄參, 牡丹皮, 輕粉, 金銀花, 沒藥, 連翹, 乳香, 地骨皮의 18개 藥物이다.
- ③ 『草本卷』 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감소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 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生地黃, 知母, 石膏, 苦參, 木通, 黃栢, 猪苓, 梔子, 牛蒡子, 忍冬藤, 柴胡, 瓜蒌仁, 滑石의 13개 藥物이다.
- ④ 『草本卷』 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

도가 감소되었고, 『甲午本』과 『初版本』에서는 동일한 藥物은 前胡, 枸杞子, 朱砂, 黃連, 甘草, 牛膝, 貝母, 粳米, 蘆薈, 芒硝, 麥芽, 鱉甲, 使君子, 石雄黃, 莞花, 竹瀝, 草龍膽, 寒水石, 黑丑의 19개 藥物이다.

- ⑤ 『草本卷』과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동일하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肉蓯蓉, 覆盆子の 2개 藥物이다.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서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전체 少陽人 藥物 53개 중 16개 藥物로 약 28.3%를 차지하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전체 少陽人 藥物 36개 중 6개 藥物로 약 17%를 차지하며,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서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전체 少陽人 藥物 37개 중 7개로 약 19%를 차지한다.

4) 藥物중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 없는 藥物은 사용빈도수를 0으로 파악하였다.

표 4. 少陽人 藥方의 각 문헌별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草本卷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甲午本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初版本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茯苓	29	8	16	生地黄	27	17	10	防風	23	3	20
生地黄	27	17	10	覆盆子	10	10	2	荊芥	21	4	17
羌活	23	5	14	山茱萸	22	9	10	澤瀉	22	9	16
防風	23	3	20	澤瀉	22	9	16	茯苓	29	8	16
山茱萸	22	9	10	茯苓	29	8	16	羌活	23	5	14
澤瀉	22	9	16	柴胡	15	8	1	獨活	19	4	14
荊芥	21	4	17	石膏	13	8	6	車前子	16	2	12
獨活	19	4	14	知母	13	8	7	生地黄	27	17	10
車前子	16	2	12	苦參	8	7	3	山茱萸	22	9	10
柴胡	15	8	1	羌活	23	5	14	熟地黄	12	1	10
黃柏	15	4	3	黃連	10	5	5	知母	13	8	7
石膏	13	8	6	猪苓	9	5	2	石膏	13	8	6
前胡	13	3	3	荊芥	21	4	17	黃連	10	5	5
知母	13	8	7	獨活	19	4	14	甘遂	3	1	5
熟地黄	12	1	10	黃柏	15	4	3	女參	10	2	4
木通	11	4	3	木通	11	4	3	牡丹皮	9	2	4
覆盆子	10	10	2	梔子	6	4	2	輕粉	2	1	4
玄參	10	2	4	薄荷	2	4	1	苦參	8	7	3
黃連	10	5	5	防風	23	3	20	黃柏	15	4	3
瓜蒌仁	9	2	1	前胡	13	3	3	木通	11	4	3
牡丹皮	9	2	4	忍冬藤	8	3	2	前胡	13	3	3
猪苓	9	5	2	牛蒡子	6	3	2	地骨皮	3	1	3
苦參	8	7	3	滑石	4	3	2	覆盆子	10	10	2
枸杞子	8	2	2	車前子	16	2	12	猪苓	9	5	2
忍冬藤	8	3	2	玄參	10	2	4	梔子	6	4	2
甘草	6			瓜蒌仁	9	2	1	忍冬藤	8	3	2
牛蒡子	6	3	2	牡丹皮	9	2	4	牛蒡子	6	3	2
梔子	6	4	2	枸杞子	8	2	2	滑石	4	3	2
滑石	4	3	2	朱砂	3	2	2	枸杞子	8	2	2
牛膝	4			肉蓯蓉	2	2		朱砂	3	2	2
甘遂	3	1	5	熟地黄	12	1	10	柴胡	15	8	1
朱砂	3	2	2	甘遂	3	1	5	薄荷	2	4	1
地骨皮	3	1	3	地骨皮	3	1	3	瓜蒌仁	9	2	1
輕粉	2	1	4	輕粉	2	1	4	金銀花	2		1
金銀花	2		1	乾地黄		1		沒藥	1		1
薄荷	2	4	1	靈砂		1		連翹	1		1
肉蓯蓉	2	2		甘草	6			乳香	1		1
貝母	2			牛膝	4			肉蓯蓉	2	2	
粳米	1			金銀花	2		1	乾地黄		1	
蘆薈	1			貝母	2			靈砂		1	
芒硝	1			粳米	1			甘草	6		
麥芽	1			蘆薈	1			牛膝	4		
沒藥	1		1	芒硝	1			貝母	2		
鱉甲	1			麥芽	1			粳米	1		
使君子	1			沒藥	1		1	蘆薈	1		
石雄黃	1			鱉甲	1			芒硝	1		
連翹	1		1	使君子	1			麥芽	1		
芫花	1			石雄黃	1			鱉甲	1		
乳香	1		1	連翹	1		1	使君子	1		
竹瀝	1			芫花	1			石雄黃	1		
草龍膽	1			乳香	1		1	芫花	1		
寒水石	1			竹瀝	1			竹瀝	1		
黑丑	1			草龍膽	1			草龍膽	1		
乾地黄		1		寒水石	1			寒水石	1		
靈砂		1		黑丑	1			黑丑	1		

비고 : 1.표안에 숫자는 각 藥物이 사용된 회수이다. 2. 赤茯苓, 白茯苓, 茯苓은 茯苓으로 統一하였다. 3. 山梔子와 梔子는 梔子로 통일하였다. 4. 川黃連과 黃連은 黃連으로 통일하였다. 5. 瓜蒌仁和 瓜蒌實은 瓜蒌仁으로 통일하여 파악하였다. 6. 活套까지 포함하면 草本卷 少陽人 藥方은 54종이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은 22종이며,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은 26종이다. 4.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53종이고,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36종이며,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37종이다.

2. 少陽人 新定方の 형성과정

1)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및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및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名名된 藥方은 陽毒白虎湯의 1개 藥方이다.

(1) 陽毒白虎湯

『草本卷』 陽毒白虎湯과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고, 『甲午本』 陽毒白虎湯과 『初版本』 陽毒白虎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草本卷』 陽毒白虎湯은 『草本卷』 白虎湯(二統)의 개념에서 知母를 빼고 다른 藥材를 加味한 藥方으로 白虎湯 계열에서 知母를 去하는 정신을 보여준다.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草本卷』 陽毒白虎湯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初版本』 陽毒白虎湯은 羌活 獨活 柴胡 玄參 梔子 忍冬藤 薄荷가 모두 去하게 되고 白虎湯의 개념인 石膏 生地黃 知母를 주축으로 하여 防風과 牛蒡子가 남게되는 藥方의 형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즉 『草本卷』과 『甲午本』의 白虎湯에서 石膏를 1錢 或은 6錢 증량 시키고, 荊芥, 牛蒡子, 防風 各 1錢을 加하여 구성된 것으로 『初版本』 新定方에는 白虎湯이 바로 쓰이지 않고 이러한 藥物의 加減을 통해 少陽人 胸膈熱證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의 陽毒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5.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陽毒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陽毒白虎湯	甲午本 陽毒白虎湯	初版本 陽毒白虎湯
石膏	4	4	5 或 10
生地黃	4	4	4
荊芥	1	1	1
牛蒡子	1	1	1
羌活	1	1	
獨活	0.5	0.5	
玄參	0.5	0.5	
柴胡	0.5	0.5	
山梔子	0.5	0.5	
忍冬藤	0.5	0.5	
薄荷	0.5	0.5	
知母			2
防風			1

2)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名名된 藥方은 防風通聖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白虎湯,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 七味苦蔘湯, 八味苦蔘湯, 水火既濟湯, 七味猪苓湯의 11개 藥方이다.

(1) 防風通聖散

『甲午本』 防風通聖散과 『草本卷』 防風通聖散은 그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草本卷』 防風通聖散이 『甲午本』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草本卷』의 藥方 구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草本卷』 防風通聖散과 『甲午本』 防風通聖散의 藥物 구성은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6. 『草本卷』 防風通聖散과 『甲午本』 防風通聖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防風通聖散	甲午本 防風通聖散
滑石	2	2
生地黃	2	2
防風	1	1
石膏	1	1
羌活	0.5	0.5
獨活	0.5	0.5
柴胡	0.5	0.5
前胡	0.5	0.5
薄荷	0.5	0.5
荊芥	0.5	0.5
牛蒡子	0.5	0.5
梔子	0.5	0.5

『草本卷』에서 防風通聖散을 사용한 病證例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는 治發熱陽毒證으로 滑石과 生地黃을 사용하여 清熱을 도모하려는 개념에서 쓰인 藥方으로 파악되며, 『甲午本』에서 防風通聖散을 사용한 病證例은 外感表證中 發熱 惡寒하는데 있어 熱多病에 사용하였고⁵⁾, 裏證에서 消渴病증을 다루었으며⁶⁾, 少陽人 小兒의 食多肌瘦證에 사용하는 例⁷⁾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草本卷』 당시에는 清熱의 개념

을 두어 外感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立方한 것으로 파악되며, 『甲午本』에서는 外感表證에 熱證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와 裏證에 있어 內熱證을 겸하는데 사용하는 藥方으로 까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千金導赤散

『草本卷』 千金導赤散과 『甲午本』 千金導赤散은 그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草本卷』 千金導赤散이 『甲午本』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草本卷』의 藥方 구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草本卷』 千金導赤散과 『甲午本』 千金導赤散의 藥物 구성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7. 『草本卷』 千金導赤散과 『甲午本』 千金導赤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千金導赤散	甲午本 千金導赤散
生地黃	4	4
木通	2	2
黃連	2	2
柴胡	2	2
山茱萸	2	2
覆盆子	2	2

『草本卷』 千金導赤散은 그 病證의 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甲午本』 千金導赤散은 少陽人 外感膀胱病論과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에 기재되어 少陽人 表病에서 初中重證의 개념에서 中證의 양상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제시되었었으며⁸⁾, 發熱 惡寒 熱多寒少한

5)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四象體質醫學會. 2001. p.32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 今考更定 發熱... 發熱惡寒而熱多病 當用防風通聖散 ...

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上擧書. p.37

「少陽人內觸大腸病論」

27. 今考更定... 治法宜早宜急於上消中消 不可差緩太晚於下消 癰疽強中 宜用... 防風通聖散 ...

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上擧書. p.41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3. 少陽人小兒 食多肌瘦 當門二齒肉爛或有微血 此胃熱也 當用... 防風通聖散 ...

8)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擧書. p.39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6. 少陽少陰人藥 以溫冷正對而論之則 ... 柴胡芫蕪湯 千金導赤散與獨參八物湯補中益氣湯 相對也...

症狀과 少陽病의 대표적 개념인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往來寒熱”하는 證에 사용 하는 藥方으로 立方 되었다9).

(3) 柴胡瓜蒌湯

『草本卷』柴胡瓜蒌湯은 『甲午本』柴胡瓜蒌湯은 그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草本卷』柴胡瓜蒌湯이 『甲午本』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草本卷』의 藥方 구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草本卷』柴胡瓜蒌湯과 『甲午本』柴胡瓜蒌湯의 藥物 구성은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8. 『草本卷』柴胡瓜蒌湯과 『甲午本』柴胡瓜蒌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柴胡瓜蒌湯	甲午本 柴胡瓜蒌湯
生地黃	4	4
木通	2	2
瓜蒌仁	2	2
山茱萸	1	1
覆盆子	1	1
黃連	1	1
苦參	1	1
柴胡	1	1
前胡	1	1
獨活	1	1

9)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32,34

「少陽人外感膀胱病論」

5. 今考更定 發熱惡寒熱多寒少而身痒者 其病不輕而猶非重證也. 身不痒者 其病不輕而已爲重證也. 此證... 大便不過一晝夜有餘而通者 當用千金導赤散 ...

9.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10. 今考更定 已上諸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25. 今考更定 ... 短氣喘促者 膀胱不足之竭勢也 不急治必危 當用... 千金導赤散 ... 寒熱往來 脇下硬滿者 當用千金導赤散...

30. 今考更定 傷寒病 有再痛三痛而愈者 ... 不痛日與不甚痛日則當用柴胡瓜蒌湯 千金導赤散

『草本卷』柴胡瓜蒌湯은 『草本卷』에서 病證論에 그 용례가 없으며 主治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甲午本』柴胡瓜蒌湯은 千金導赤散과 같이 少陽人 表病에서 初中重證의 개념에서 中證의 양상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제시되었으며¹⁰⁾, 少陽人 外感膀胱病論에서 表證에서 熱證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少陽病을 처리하려는 개념으로 제시되며, 燥渴譫語하는 結胸證과 少陰人에서 巴豆를 써서 冷滯를 풀려고 한 개념을 甘遂로써 裏熱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調理하는 藥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¹¹⁾. 또한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에서 瘧疾에 사용하는 藥方으로도 그 사용례를 기재하고 있다¹²⁾.

10)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39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6. 少陽少陰人藥 以溫冷正對而 論之則 ... 柴胡瓜蒌湯 千金導赤散與獨參八物湯補中益氣湯 相對也 ...

1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32-34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5. 今考更定 發熱... 大便不過一晝夜有餘而通者 當用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

9.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10. 今考更定 已上諸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11. 論曰 張仲景所論... 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最重證也 不可不急治 當用柴胡瓜蒌湯 ... 寒熱往來 胸脇滿而 大便不過一晝夜有餘者 當用... 柴胡瓜蒌湯 大便過一晝夜有餘者 當用柴胡瓜蒌湯 加石膏一錢...

19. 論曰 此證... 汗出短氣而結胸者 當用柴胡瓜蒌湯... 燥渴譫語而結胸者 當用柴胡瓜蒌湯合白虎湯...

21. 少陽人... 用時豫煎 柴胡瓜蒌湯二貼 豫備米飲二椀 下利一度 因用柴胡瓜蒌湯 下利三度...

25. 今考更定 少陽人... 短氣喘促者膀胱不足之竭勢也 不急治必危 當用柴胡瓜蒌湯 ...

30. 今考更定 傷寒病... 不痛日與不甚痛日則當用柴胡瓜蒌湯 千金導赤散

1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41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2. 少陽人瘧病 有間兩日而發者 卽勞瘧也 可以緩治不可急治 此 瘧不發日午後 每用柴胡瓜蒌湯一貼 瘧發日惡寒時 每用荊防敗毒散一貼 一月之內 以柴胡瓜蒌湯 二十貼...

(4) 白虎湯

『草本卷』에 기재된 白虎湯은 2종류가 있는데 一統에 기재된 白虎湯과 二統에 기재된 白虎湯은 약물의 構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甲午本』의 白虎湯은 二統에 있는 白虎湯과 藥物의 種類와 分量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로써 一統에 있는 白虎湯은 古方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傷寒論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二統에 있는 白虎湯과 『甲午本』 白虎湯이 동일한 것은 『草本卷』의 白虎湯이 그대로 『甲午本』 白虎湯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草本卷』 白虎湯과 『甲午本』 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9. 『草本卷』 白虎湯과 『甲午本』 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白虎湯		甲午本 白虎湯
	一統	二統	
生地黃		4	4
石膏	4	4	4
知母	2	2	2
粳米	少許		

『草本卷』 白虎湯은 『草本卷』에서 病證論에 용례가 없으며 主治는 一統의 白虎湯은 治運氣, 熱煩, 發狂, 熱煩過時則發狂과 二統의 白虎湯은 治譫語證으로 제시하고 있다. 『甲午本』 白虎湯은 譫語證에 사용하는 主治를 新定方篇에 기재하고 있고, 少陽人 外感膀胱病論과 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 기재되면서 熱證으로 인해 大便이 不通하는 경우에 表裏를 막론하고 고려할 수 있는 藥方으로 생각된다.¹³⁾ 生地黃 石膏 知母의 藥對

1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32-33,35-37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5. 今考更定 發熱惡寒熱多寒少而身痒者... 此證 大便

는 『草本卷』 白虎湯에서부터 기재되어 있고, 『甲午本』에는 이에 대한 體質病證을 설명함으로 少陽人의 胸膈에 凝滯된 熱을 풀어서 清陽之氣의 上升을 시도하려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渡海白虎湯

『草本卷』 渡海白虎湯과 『甲午本』 渡海白虎湯은 그 藥物의 構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甲午本』에서 渡海白虎湯의 石膏의 용량이 二錢 증가되어 四錢으로 사용된다. 『草本卷』 당시 白虎湯의 개념에서 石膏의 용량을 감하였으나 東武의 임상경험에 의해 다시 白虎湯의 개념인 石膏 四錢을 사용하고 生地黃은 그대로 감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草本卷』 渡海白虎湯과 『甲午本』 渡海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다.

過一晝夜有餘而 不通者 當用白虎湯...

11. 論曰 張仲景所論 ... 大便過一晝夜有餘者 當用柴胡芩藜湯 加石膏一錢 至於二晝夜則 當用白虎湯

12. 少陽人病 但寒無熱 ... 但寒無熱者 用柴胡芩藜湯 但熱無寒者 用白虎湯...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4. 今考更定 此證 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 已上諸證 當用猪苓湯白虎湯而... 白虎湯 當去甘草 ...

5. 論曰 少陰人胃病 ... 一證顯出而 大便過一晝夜一二辰刻則 皆連用白虎湯 必無可疑.

8. 揚手躓足 陽毒發斑 但熱無寒之病... 此等奇險證 大便過一晝夜一二辰刻者 必用白虎湯...

9. 惡寒病 膀胱病初證也... 二晝夜病熱重也 三晝夜者 危險也 用白虎湯 三四服則...

12. 少陽人 大便不通之用白虎湯 ...

14. 甘遂 破胸膈水結之善藥而 非通大便之好藥也 白虎湯 通大便之善藥而 非破胸膈水結之好藥也 是故以胸膈水結爲患者 當用甘遂而 不當用白虎湯而 大便不通爲患者 當用白虎湯 不當用甘遂 蓋甘遂 膀胱病藥也 白虎湯 大腸病藥也

표 10. 『草本卷』 渡海白虎湯과 『甲午本』 渡海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渡海白虎湯	甲午本 渡海白虎湯
石膏	2	4
生地黃	2	2
知母	2	2
覆盆子	2	2
山茱萸	2	2
肉蓯蓉	2	2
苦參	1	1
枸杞子	1	1

『草本卷』 渡海白虎湯은 病證論에서 그 사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는 治譫語證으로 『草本卷』 白虎湯의 主治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甲午本』 渡海白虎湯은 『草本卷』 당시의 主治인 治譫語證이 그대로 연결되며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에서 陽明證과 譫語證에 사용하는 용례가 기재되어 있다¹⁴⁾.

(6) 猪苓白虎湯

『草本卷』 猪苓白虎湯과 『甲午本』 猪苓白虎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이 동일하다. 이는 『甲午本』 猪苓白虎湯이 『草本卷』 猪苓白虎湯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草本卷』 猪苓白虎湯과 『甲午本』 猪苓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1. 『草本卷』 猪苓白虎湯과 『甲午本』 猪苓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猪苓白虎湯	甲午本 猪苓白虎湯
石膏	4	4
生地黃	4	4
知母	2	2
黃栢	1	1
澤瀉	1	1
猪苓	1	1
赤茯苓	1	1

『草本卷』 猪苓白虎湯은 『草本卷』의 病證論에서 언급이 없으며 主治는 治大小便不通證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石膏 生地黃 知母인 白虎湯의 藥對개념을 이용하여 少陽人의 胸膈熱을 해결하여 大便을 善通케 하고 澤瀉 猪苓등의 약재가 加味되어 小便不通을 해결하려는 정신에서 立方한 것으로 파악된다. 『甲午本』 猪苓白虎湯은 新定方篇에 그 主治를 『草本卷』과 같이 治大小便不通이라하여 『草本卷』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 陽明證과 陽毒發斑하는 증상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있다.¹⁵⁾

(7) 陽毒白虎湯

『草本卷』 陽毒白虎湯과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草本卷』 陽毒白虎湯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草本卷』 陽毒白虎湯은 『草本卷』 白虎湯(二統)의 개념에서 知母를 빼고 다른

1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35,36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4. 今考更定 此證 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少陽陽明 俱有之謂也... 已上諸證 當用... 渡海白虎湯...

10. 膀胱病 惡寒證大便過三晝夜有餘而危險者用藥則十之八九必有生者也. 大腸病 譫語證 大便秘閉者 二晝夜前命已傾矣. 兩晝一夜兩夜一晝則十之八九無及矣 宜用豫防錦上添花白虎湯渡海白虎湯

1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35

「少陽人內觸大腸病論」

4. 今考更定 此證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少陽陽明俱有之謂也 ... 已上諸證 當用... 陽毒白虎湯

8. 揚手躄足陽毒發斑 但熱無寒之病 俱爲傷寒時氣病 奇險證 宜... 陽毒白虎湯 ...

藥材를 加味한 藥方으로 白虎湯 계열에서 知母를 去하는 正신을 보여준다. 『草本卷』 陽毒白虎湯과 『甲午本』 陽毒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草本卷』 陽毒白虎湯은 病證論에서 그 用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 陽明證과 陽毒證, 消渴의 病證과 纏喉風에 사용하는 病證 用例가 기재되어 있다¹⁶⁾

표 12. 『草本卷』 陽毒白虎湯과 『甲午本』 陽毒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陽毒白虎湯	甲午本 陽毒白虎湯
石膏	4	4
生地黃	4	4
荊芥	1	1
牛蒡子	1	1
羌活	1	1
獨活	0.5	0.5
玄參	0.5	0.5
柴胡	0.5	0.5
山梔子	0.5	0.5
忍冬藤	0.5	0.5
薄荷	0.5	0.5

1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摺書. pp.35,37,41

「少陽人內觸大腸病論」

4. 今考更定 此證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少陽陽明俱有之謂也 ... 已上諸證 當用... 陽毒白虎湯

7. 傷寒時氣病 胸背手足或面部發斑如錦紋細粒者 最爲奇險之陽毒也 宜用 陽毒白虎湯 ...

8. 揚手躑足陽毒發斑 但熱無寒之病 俱爲傷寒時氣病 奇險證 宜... 陽毒白虎湯 ...

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而 中消爲此病之主證. 上消則中消之初證也 下消則中消之末證也.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則 中消之變證也. 癰疽強中之病則 中消之危證也. 治法 宜早宜急於上消中消 不可差緩太晚於下消 癰疽強中 宜用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4. 少陽人病內發咽喉而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殺人最危 又上唇人中穴左右遍近處一指許發腫雖微如粟粒亦危證也. 此二證始發而輕者 當用陽毒白虎湯 ...

(8) 七味苦蔘湯

『草本卷』 七味苦蔘湯과 『甲午本』 七味苦蔘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즉 『甲午本』 七味苦蔘湯은 『草本卷』 七味苦蔘湯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草本卷』 七味苦蔘湯과 『甲午本』 七味苦蔘湯의 藥物 구성은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다.

『草本卷』 七味苦蔘湯은 病證論에서 그 用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는 治吐血, 嘔吐, 腸病, 痞滿證이다. 이러한 主治는 『甲午本』 七味苦蔘湯 新定方篇에 그대로 연결되어 『甲午本』에서도 主治를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七味苦蔘湯은 『草本卷』 당시의 개념을 『甲午本』까지 그대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甲午本』의 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는 七味苦蔘湯을 陰虛午熱한 證과 中風, 吐血, 嘔吐, 腹痛, 痞滿證에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으며 이는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에서 재차 기재하고 있다¹⁷⁾.

표 13. 『草本卷』 七味苦蔘湯과 『甲午本』 七味苦蔘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七味苦蔘湯	甲午本 七味苦蔘湯
生地黃	4	4
苦參	2	2
知母	2	2
山茱萸	2	2
覆盆子	2	2
赤茯苓	1	1
澤瀉	1	1

1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摺書. pp.38,40

「少陽人內觸大腸病論」

31.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陰虛火動 大腸熱骨蒸之病而 其病纒始而又輕 故可治也. 不急治益危 當用水火既濟湯 七味苦蔘湯 ...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

22. 少陽人陰虛午熱 當用水火既濟湯 七味苦蔘湯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 當用八味苦蔘湯 七味苦蔘湯

(9) 八味苦蓼湯

『草本卷』 八味苦蓼湯과 『甲午本』 八味苦蓼湯은 그 藥物의 構成에 있어서 동일하게 연결되며, 牡丹皮의 용량이 『草本卷』에서 기재되고 있지 않아 『草本卷』 八味苦蓼湯이 바로 『甲午本』 八味苦蓼湯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하기 어렵다. 『草本卷』 八味苦蓼湯과 『甲午本』 八味苦蓼湯의 藥物 구성은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4. 『草本卷』 八味苦蓼湯과 『甲午本』 八味苦蓼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八味苦蓼湯	甲午本 八味苦蓼湯
生地黃	4	4
苦參	2	2
知母	2	2
山茱萸	2	2
覆盆子	2	2
赤茯苓	1	1
澤瀉	1	1
牡丹皮	加	1

『草本卷』 八味苦蓼湯은 『草本卷』 七味苦蓼湯에 牡丹皮를 加해서 형성된 藥方으로 『草本卷』 病證論에서 그 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는 七味苦蓼湯의 主治인 治吐血, 嘔吐, 腸病, 痞滿證이다. 이 八味苦蓼湯은 『甲午本』에서 七味苦蓼湯과 같이 主治와 藥物의 構成이 그대로 연결된다. 『甲午本』 八味苦蓼湯은 『甲午本』 七味苦蓼湯에 牡丹皮 一錢을 加하여 構成된 藥方으로 主治는 『甲午本』 七味苦蓼湯의 主治를 따르게 된다. 다만 『甲午本』 少陽人 外感膀胱病論에서 八味苦蓼湯의 용례가 있는 것이 七味苦蓼湯과의 차이로 傷寒病에 腹痛泄瀉가 있는 證에 사용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고¹⁸⁾,

이는 主治證과는 연계되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陰虛午熱證에과 中風, 吐血, 嘔吐, 腹痛, 痞滿證에 사용하는 『甲午本』 八味苦蓼湯의 개념은 마찬가지로 病證論에서 설명하고 있다¹⁹⁾.

(10) 水火既濟湯

『草本卷』 水火既濟湯과 『甲午本』 水火既濟湯은 藥物의 構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加해진 乾地黃을 제외하면 그 용량은 거의 동일하다. 이는 『甲午本』으로 가면서 地黃之劑의 修治法을 모두 사용하려는 東武의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東武는 약제의 藥性 및 藥方에 있어서 활용용도를 경험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草本卷』 水火既濟湯과 『甲午本』 水火既濟湯의 藥物 구성은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다.

18)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34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28. 今考更定 少陽人病 微腹痛大滑泄當二三度而止者其病必快解也而 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或但痛不泄者即 膀胱內守之眞陰虛弱熱氣相迫之故也. 傷寒病有此證者 始發已爲重險證 不可不急治 當用柴胡四苓散 八味苦蓼湯... 此證 腹痛而有泄瀉者 重證中輕證猶在也. 腹痛而無泄瀉者 重證中其證又險峻也 當用... 八味苦蓼湯加石膏一錢. 少陽人病 泄瀉連三四日後 大便仍閉不通者 多成危證 最不可等閑任置也. 泄瀉後大便仍閉者 亦當用... 八味苦蓼湯加石膏...

19)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40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2. 少陽人陰虛午熱 當用火既濟湯 七味苦蓼湯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 當用八味苦蓼湯 七味苦蓼湯

표 15. 『草本卷』水火既濟湯과 『甲午本』水火既濟湯의 비교 (단위: 錢)

藥物	草本卷 水火既濟湯	甲午本 水火既濟湯
生地黃	1	1
熟地黃	1	1
知母	1	1
黃栢	1	1
山茱萸	1	1
覆盆子	1	1
苦參	1	1
柴胡	1	1
赤茯苓	1	1
澤瀉	1	1
肉蓯蓉	1	1
枸杞子	1	1
乾地黃		1

『草本卷』水火既濟湯은 『草本卷』病證論에서 그 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主治는 治腹痛, 嘔吐, 痞滿이다. 主治상으로 살펴보면 七味苦蓼湯과 八味苦蓼湯의 主治와 유사하며, 藥物의 構成上에서도 七味苦蓼湯의 藥材 構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加味된 藥材는 熟地黃 柴胡 黃栢 枸杞子 肉蓯蓉이다. 다만 七味苦蓼湯의 藥物 용량을 무시하고 모두 1錢으로 통일한 것은 약재 하나 하나의 효능보다, 약재의 構成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甲午本』에서 乾地黃을 加味한 藥方으로 立方되며, 主治의 기재는 사라지게 된다. 『甲午本』水火既濟湯은 『甲午本』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 陰虛火動, 陰虛午熱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있으며²⁰⁾ 이는 少陽人 膀胱大腸病

20)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38

「少陽人內觸大腸病論」

31.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陰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而 ... 當用水火既濟湯 ...

32. 論曰 下消強中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大腸火骨

篇尾 泛論에서 재차 거론하게 된다²¹⁾.

(11) 七味猪苓湯

『草本卷』七味猪苓湯과 『甲午本』七味猪苓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이 동일하다. 이는 즉 『甲午本』七味猪苓湯은 『草本卷』七味猪苓湯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甲午本』七味猪苓湯과 『初版本』七味猪苓湯의 藥物 구성은 표 13.에 정리된 바와 같다.

『草本卷』七味猪苓湯은 『草本卷』에서 病證論에 용례가 없으며 主治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甲午本』七味猪苓湯은 新定方篇에 治腹痛嘔吐痞滿이라하여 主治가 기재되어 있는데 『草本卷』七味苦蓼湯의 主治와 유사하며 이러한 기재의 배열도 또한 유사하여 이 主治는 『草本卷』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甲午本』七味猪苓湯은 『甲午本』少陽人 內觸大腸病論에서 陰虛火動에 사용되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있으며²²⁾ 水火既濟湯, 七味苦蓼湯, 八味苦蓼湯, 七味猪苓湯은 모두 陰虛火動해서 생기는 裏熱證을 해결하려고 시도된 藥方으로 인식할 수 있다.

蒸之新病 皆數年調治服藥 然後可以免危病而 下消強中者 清涼散火湯 陰虛午熱者 當用水火既濟湯 必戒哀怒斷酒色 ...

2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40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2. 少陽人陰虛午熱 當用水火既濟湯 七味苦蓼湯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 當用八味苦蓼湯 七味苦蓼湯

2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38

「少陽人內觸大腸病論」

31.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陰虛火動 大腸熱骨蒸之病而 其病纔始而又輕 故可治也 不急治益危 當用水火既濟湯 七味苦蓼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 必戒哀怒斷酒色

표 16. 『甲午本』 七味猪苓湯과 『初版本』 七味猪苓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七味猪苓湯	甲午本 七味猪苓湯
生地黄	4	4
山茱萸	2	2
覆盆子	2	2
澤瀉	2	2
赤茯苓	2	2
猪苓	1	1
黄栢	1	1

3)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과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과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命名된 藥方은 荊防敗毒散, 陽毒白虎湯, 木通大安湯, 黃連清腸湯, 朱砂益元散의 5개 藥方이다.

(1) 荊防敗毒散

『甲午本』 荊防敗毒散과 『初版本』 荊防敗毒散은 羌活이 1錢 減량되고 玄參 梔子 忍冬藤 薄荷가 빠지고 赤茯苓 生地黄 車前子 各 1錢이 加하여 構成되었다. 『初版本』으로 오면서 構成 藥物의 모든 용량이 1錢으로 통일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表證에 대표적인 藥物들을 모두 동일한 용량으로 사용하여 少陽人의 表證을 해결하려고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甲午本』 荊防敗毒散과 『初版本』 荊防敗毒散의 藥物 구성은 표 14에 정리된 바와 같다.

『甲午本』 元明二代醫家著述中少陽人病行用要藥九方に 기재된 荊防敗毒散은 醫鑑書中에서 출전되었다고 밝히고, 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를 去해야한다고 하였다.²³⁾ 『甲午本』 新定方

荊防敗毒散은 原名行用要藥에 기재된 바와 달리 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羌活을 1錢증량 시켰고, 荊芥와 薄荷를 0.5錢 사용하였으며, 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를 去하고, 赤茯苓을 去했으며, 玄參, 梔子, 忍冬藤, 地骨皮를 1錢씩 加하여서 構成되었다. 『初版本』 新定方 荊防敗毒散은 原名行用要藥에 기재된 바와 같이 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를 去하였고, 薄荷를 去하였으며, 地骨皮, 生地黄, 車前子が 1錢씩 加해져서 構成되었다. 전체적인 구성면에 있어서는 『初版本』 新定方 荊防敗毒散이 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今考更定한 것과 유사하며, 地骨皮의 사용은 『甲午本』 부터 시작되었고, 『甲午本』에서 玄參, 梔子, 忍冬藤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 『初版本』에서는 生地黄, 車前子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甲午本』 荊防敗毒散은 少陽人 外感膀胱病論에서 少陽人의 外感表證을 다루는 대표적인 藥方으로 보고 있으며, 少陽病人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의 證에 사용되었고, 發熱 惡寒 身痛 煩躁者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며,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에서 瘧疾에 사용하려는 개념까지 확대하고 있다²⁴⁾.

2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44

荊防敗毒散：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 各一錢 薄荷 少許.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傷寒 時氣發熱 頭痛 項強 肢體煩疼. ○ 今考更定 此方 當去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

2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32,34,41

「少陽人外感膀胱病論」

2. 今考更定 發熱惡寒脈浮緊身痛不汗出而煩燥者 即少陽人外感表證也 此證 發熱 惡寒而 寒多者 當用荊防敗毒散 發熱 惡寒而熱多病 當用防風通聖散 此證 大青龍湯 不當用

10. 今考更定 已上諸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

11. 論曰 張仲景所論少陽病 即少陽人膀胱下陷之陰氣爲熱邪所壅 未達下陷 凝聚膈間膠固因滯之證也. 此

표 17. 『甲午本』 荊防敗毒散과 『初版本』 荊防敗毒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荊防敗毒散	初版本 荊防敗毒散
羌活	2	1
獨活	1	1
柴胡	1	1
前胡	1	1
防風	1	1
玄參	1	
梔子	1	
忍冬藤	1	
地骨皮	1	1
荊芥	0.5	1
薄荷	0.5	
赤茯苓		1
生地黃		1
車前子		1

『初版本』에서는 이러한 病證 개념이 거의 동일하게 연결되어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대표적인 藥方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少陽病證을 해결하려는 개념이 연결되며, 瘧疾에 사용하려는 개념까지도 연결된다²⁵⁾.

證... 故其證 寒多熱少而 雖則鋼寒時 亦發熱也 當用 荊防敗毒散...

25. 今考更定 少陽人膀胱病 發熱惡寒身痛煩躁脈浮緊者 初輕證也 寒熱往來 胸脇滿者 次尤證也 結胸病 次重證也 短氣喘促病 次險證也... 發熱 惡寒 身痛 煩躁者 當用荊防敗毒散 ...

30. 今考更定 傷寒病有再痛三痛而愈者 非再三感風寒 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初痛當用荊防敗毒散...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32. 少陽人瘧病 有間兩日而發者 卽勞瘧也 可以緩治 不可急治 此證... 瘧發日惡寒時 每用荊防敗毒散一貼 一月之內 以柴胡芫蕪湯 二十貼 荊防敗毒散十貼 爲準的則 其瘧必無不退之理

25)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서울:여강출판사. 1992. pp.167,168,171,177,211.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論曰 發熱惡寒 脈浮緊 身痛不汗出而煩躁者 卽少陽人 脾受寒表寒病也 此證... 當用荊防敗毒散.”

“論曰 此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少陽人傷寒病 有再痛三痛發汗而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 無論初痛再痛三痛 用荊防敗毒散...”

(2) 陽毒白虎湯

『甲午本』 陽毒白虎湯과 『初版本』 陽毒白虎湯은 藥物의 構成과 용량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우선 藥物이 대대적으로 빠지게 되어 羌活 獨活 柴胡 玄參 梔子 忍冬藤 薄荷가 모두 去하게 되고 白虎湯의 개념인 石膏 生地黃 知母를 주축으로 하여 防風과 牛蒡子가 남게되는 藥方의 형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즉 『草本卷』과 『甲午本』의 白虎湯에서 石膏를 1錢 或은 6錢 증량시키고, 荊芥, 牛蒡子, 防風 각 1錢을 加하여 구성된 것으로 『初版本』 新定方에는 白虎湯이 바로 쓰이지 않고 이러한 藥物의 加減을 통해 少陽人 胸膈熱證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甲午本』 陽毒白虎湯과 『初版本』 陽毒白虎湯의 藥物 구성은 표 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8. 『甲午本』 陽毒白虎湯과 『初版本』 陽毒白虎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陽毒白虎湯	初版本 陽毒白虎湯
石膏	4	5 或 10
生地黃	4	4
荊芥	1	1
牛蒡子	1	1
羌活	1	
獨活	0.5	
柴胡	0.5	
玄參	0.5	
梔子	0.5	
忍冬藤	0.5	
薄荷	0.5	
知母		2
防風		1

『甲午本』 陽毒白虎湯은 少陽人 內觸大腸

“少陽人 忽然有吐者 必生奇證也 當用荊防敗毒散 以觀動靜 ...”

「少陽人 泛論」

“少陽人瘧病 有間兩日發者 卽勞瘧也 可以緩治 不可急治 此證... 瘧發日 預煎荊防敗毒散二貼...”

病論에서 陽明證과 陽毒證, 消渴의 病證과 纏喉風에 사용하는 病證 용례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病證 용례는 『初版本』으로 연결되면서 纏喉風에 사용하는 病證 용례²⁶⁾가 남게 되고, 『初版本』 新定方篇에 治陽毒發斑便秘者 宜用이라하여 그 主治가 기재되어 있는데 즉 『甲午本』의 病證 用例가 『初版本』에 모두 연결되지는 않으나 陽毒白虎湯의 사용용도는 陽毒으로 인한 증상에 사용하려고 立方한 藥方으로 파악된다.

(3) 木通大安湯

『甲午本』 木通大安湯과 『初版本』 木通大安湯은 藥物의 종류 및 용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木通大安湯은 『甲午本』 木通大安湯에서 木通이 1錢 감량되고 生地黃이 1錢 증량 되었으며 苦參이 빠지고 赤茯苓 澤瀉 防風 荊芥가 加味된 藥方으로構成된다. 즉 茯苓, 澤瀉, 荊芥, 防風으로 降陰시켜 浮腫을 치료하고자 하려는 개념으로 加味된 것을 알 수 있다. 『甲午本』 木通大安湯과 『初版本』 木通大安湯의 藥物 구성은 표 16.에 정리된 바와 같다.

『甲午本』 木通大安湯은 新定方篇에서 治浮腫이라하여 그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에서 浮腫에 대한 病證의 이해를 설명하면서 木通大安湯의 용례를 기재하고 있다.²⁷⁾ 『初版本』 木通大安

湯은 新定方篇에서 治浮腫者 宜用이라는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이는 甲午本的 시각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少陽人 泛論에서도 浮腫에 대한 기재가 甲午本的 시각에서 연결되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표 19. 『甲午本』 木通大安湯과 『初版本』 木通大安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木通大安湯	初版本 木通大安湯
木通	6	5
生地黃	4	5
苦參	2	
羌活	1	1
黃連	1	1
車前子	1	1
赤茯苓		2
澤瀉		1
防風		1
荊芥		1

(4) 黃連清腸湯

『甲午本』 黃連清腸湯과 『初版本』 黃連清腸湯은 藥物의 종류와 분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黃連清腸湯은 『甲午本』 黃連清腸湯에서 生地黃, 澤瀉, 茯苓이 각1錢씩 증량되었고, 黃連이 2錢 감량되었으며, 柴胡가 去해지고, 車前子和 防風이 각 1錢씩 加해져서 구성되었다.

『甲午本』 黃連清腸湯과 『初版本』 黃連清

26)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p.211

「少陽人 泛論」

“少陽人 內發咽喉 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最急 又上唇人中穴腫 謂之唇腫 凡人中左右逼近處一指許 發腫 雖微如粟粒 亦危證也. 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 陽毒白虎湯 ...”

2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40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25. 浮腫之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用藥早則最易愈也 不早則孟浪而死也. 此病 勢寬緩似不速死故人必易之. 此病實是急證 四五日內必治之疾而 漫不可以十

日論之者也 浮腫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日再服... 百藥無效者 有之 木通大安湯無效則 百藥亦無效也. ...

28)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p.209

「少陽人 泛論」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用藥早則容易愈也 用藥不早則孟浪死也. 此病 外勢平緩 似不速死故人必易之 此病 實是急證 四五日內 必治之疾 謾不可以十日論之也 浮腫 初發 當用木通大安湯 ...”

腸湯의 藥物 구성은 표 17.에 정리된 바와 같다.

『甲午本』 黃連清腸湯은 新定方篇에서 治痢疾이라 하여 그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病證論에서는 용례가 없으며, 『初版本』 黃連清腸湯은 新定方篇에서 痢疾과 淋疾에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고, 病證論에서는 용례가 없다.

표 20. 『甲午本』 黃連清腸湯과 『初版本』 黃連清腸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黃連清腸湯	初版本 黃連清腸湯
黃連	3	1
生地黃	3	4
木通	2	2
羌活	1	1
柴胡	1	
澤瀉	1	2
豬苓	1	1
赤茯苓	1	2
車前子		1
防風		1

(5) 朱砂益元散

『甲午本』 朱砂益元散과 『初版本』 朱砂益元散은 藥物이 용량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朱砂益元散은 『甲午本』 朱砂益元散에서 滑石이 증량되어 2錢이 사용되고 白虎膏²⁹⁾가 빠지고 澤瀉 1錢과 甘遂 0.5錢이 加味되어 構成된다. 『甲午本』 朱砂益元散과 『初版本』 朱砂益元散의 藥物 구성은 표 18.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1. 『甲午本』 朱砂益元散과 『初版本』 朱砂益元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朱砂益元散	初版本 朱砂益元散
滑石	1.5	2
白虎膏	1.5	
朱砂	0.1	0.1
澤瀉		1
感受		0.5

『甲午本』 朱砂益元散은 新定方篇에서 治暑證이라하여 그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病證論에서는 용례가 없으며, 『初版本』 朱砂益元散은 新定方篇에서 夏月滌暑 宜用하라는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病證論에서 용례가 없다. 이는 朱砂와 滑石을 主로하여 少陽人의 暑證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藥方으로 파악할 수 있다.

III. 結 論

-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및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に 모두 사용된 共通 藥物은 防風, 荊芥, 生地黃, 石膏 등의 32종으로 이 藥物들은 少陽人 病症을 해결하는데 要藥으로 파악할 수 있다.
-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및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은 陽毒白虎湯의 1개 藥方이며, 『初版本』에서 이전에 설정된 陽毒白虎湯의 藥物 구성을 바꾸어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藥方으로 病症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은 防風通聖散, 千金導赤散 등의 11개 藥方이고 藥物의 구성과 용량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여, 同

29 白虎湯을 膏의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名藥方の 경우 『草本卷』의 藥方이 거의 그대로 『甲午本』에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과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の 同名藥方은 荊防敗毒散, 陽毒白虎湯등의 5개 藥方이고 藥物의 구성과 용량에 있어서 모두 변화를 보여, 東武의 임상경험 증가에 따라 藥方과 藥方에 사용되는 藥物의 선택이 더욱 정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原人手抄本).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과. 1999.
2.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